



2020년 7월 둘째주

해외 ICT 표준화 동향

목차

본문 20.06.30 미국 ANSI, 무인항공기(UAV) 시스템 표준화 로드맵 2.0 발표

20.06.18 미상무부, 미국기업을 위한 5G 통신 국제 표준화 참여 규정 발표

20.06.22 중국 CESA, '국가전자정부 표준시스템 구축 지침' 발표

20.06.23 ISO, 온라인 개인정보 및 동의 보호 표준 발표

단신

20.06.24 유럽 ETSI,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자사이버보안인증그룹' 참여

20.06.25 ITU, 'COVID-19와 디지털 경제' 웨비나 개최

20.06.30 유럽 ETSI, IoT 소비자 보안 표준 발표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미국 ANSI, 무인항공기(UAV) 시스템 표준화 로드맵 2.0 발표

ANSI Publishes Standardization Roadmap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Version 2.0

보도날짜 : 20.06.30.

출 처 : https://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menuid=7&articleid=cc1dba03-334a-4470-bd43-1eb3b9b553bc

- ANSI(미국표준협회)는 6월 30일, 무인항공기(UAV) 시스템 표준화 로드맵 버전 2.0*을 발표. 본 로드맵은 ANSI내 UASSC (무인항공기시스템 표준화 협의회)에서 개발하였으며, UASSC는 미국 국가공역시스템에 무인항공기시스템(UAS 또는 드론)을 안전하게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조정과 촉진을 위해 설립된 그룹임. UASSC에는 FAA(미연방항공국), 연방정부기관, SDO(표준개발기관), 산업체, 학계 등 25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4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함

* Standardization Roadmap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Version 2.0)
(다운로드: www.ansi.org/uassc)

- 로드맵 2.0 에서는 UASSC에서 지난 9개월간 수행한 기존 표준과 개발 중인 표준 분석, 격차(gap) 평가, 선행표준화 연구(pre-standardization R&D)를 포함한 추가적인 표준화를 위한 우선순위 권고 등을 제시함. 또한, 광범위한 감항성(airworthiness)을 주제로 여러 이슈들을 다룸 - 비행 운영, 직원 교육, 자격 및 인증, 인프라 검사, 환경 애플리케이션, 상업 서비스, 작업장 안전 및 공공 안전 운영 등. 이와 함께, FAA, 연방정부기관, SDO, 다양한 산업 그룹의 UAA 관련 활동 개요를 포함하고 있음
- UASSC 로드맵의 목적은 민간, 상업, 공공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UAS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 UASSC에서 표준을 개발하지 않지만, UASSC 로드맵의 권고가 표준 커뮤니티에서 폭넓게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버전 2.0 업데이트에서는 본문 확장, 신규 주제 추가, 간과된 갭 분석, 버전 1.0에 포함된 권고와 관련된 SDO의 활동 현황, 우선순위 검토, 기타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음. 조사된 78개 이슈 분야 중 71개의 공백 격차(open gap)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 해당 이슈를 다루는 발표된 표준이나 규격이 없음을 의미함. 각각의 격차(gap)에는 대응되는 작업에 대한 권고, 표준 개발 우선순위, 담당 가능한 기관이 제시되어 있음. 특히, 공백 격차 중 47개는 상위 우선순위, 21개는 중간 우선순위, 3개는 낮은 우선순위로 파악되었으며, 53건에서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함. 버전 1.0에서의 2개의 격차는 완료되었고 3개가 철회되었으며 2.0에서 16개의 새로운 격차가 추가되었음

- 문서의 많은 부분이 수정 및 확대되었으며, 명령 및 제어(C2) 링크와 통신에 적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주, 지속적인 운영 안전성, UAS 탐지 및 완화, 공공 안전 전술 운용 부분 등이 있음. 새로운 격차 분석이 다음 분야에서 추가됨
 - UAS를 위한 블록체인
 - UAV 취미 운용
 - UAS를 위한 비행장 시설 설계 및 운영
 - UAS 서비스 공급업체 프로세스 및 품질
 - 탄화수소 파이프라인 검사에 UAS 구현
 - 비행장 운영에 UAS 구현
 - UAS를 통한 상업 화물 운송
 - UAS를 통한 상업용 여객 택시/운송(단거리 및 장거리)
 - 상업 탐지(감지) 서비스
 - 뉴스 수집을 위한 소형 UAS 사용
 - 비상사태 관리 및 재해 대응 UAS 사용
 - 소형 UAS 공공 안전 운용을 위한 데이터 포맷 표준화
- UASSC는 7월 15일 본 로드맵의 개요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임

단신

1. 20.06.18. 미상무부, 미국기업을 위한 5G 통신 국제 표준화 참여 규정 발표

- ▷ 원문제목 : New Rule from Commerce Department Enables U.S. Companies to More Fully Engage in International 5G and Telecommunications Standards-Setting
- ▷ 원문링크 : https://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menuid=7&articleid=b745542b-dfe5-4ae0-adb6-08026d62a7e4

※ ANSI(미국표준협회)는 표준화 커뮤니티를 위해 화웨이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 기사를 게재함

■ 미국 상무부 산하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산업안전국)은 미국 기업들이 5G 통신 국제 표준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발표

- BIS는 2019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화웨이와 관련 해외 계열사 114개를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여 미국 수출 희망시 면허를 받도록 한 바 있음. 이번 조치는 2019년 5월 엔티티 리스트에 화웨이가 추가됨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중요한 표준 개발 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2020년 6월 18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발행한 규정초안(draft rule)에 따르면, BIS는 화웨이와 관련 계열사들이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의 개정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특정 기술을 배포하는 경우, 면허없이 배포할 수 있도록 EAR을 개정하고 있음. 이때 '표준'은 OMB Circular A-119*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며, "표준화기구"는 OMB Circular A-119에서 정의한 '자발적 합의 표준 기구'임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Circular A-119: Federal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and in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 ANSI는 이번 조치를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며, 미국 기업과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표준개발기구들이 국제표준화에 충분히 관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차기 첨단 기술 개발과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화웨이는 해당 조치에 대해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기술 표준 제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계와 글로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화웨이와 관련 계열사에만 적용되며 다른 엔티티 리스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잠정최종규정(interim final rule)의 효력은 즉시 발휘됨. BIS는 60일 동안 본 규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음

2. 20.06.22. 중국 CESI, '국가전자정부 표준시스템 구축 지침' 발표

- ▷ 원문제목 : 市场监管总局等六部门发布《国家电子政务标准体系建设指南》
- ▷ 원문링크 : <http://www.cesi.cn/202006/6524.html>

- CESI(중국전자표준화협회)는 6월 18일, '국가전자정부 표준시스템 구축 지침'을 공식 발표. 해당 지침은 일반 표준, 인프라 표준, 데이터 표준, 비즈니스 표준, 서비스 표준, 관리 표준 및 안전 표준 등 7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국가전자정부 표준 시스템 구축과 정부 공공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를 통한 공공 정보 자원 개발과 활용, 전자 문서, 인터넷+정부 업무 적용을 위한 혁신적인 표준 체제를 제시함
- CESI는 향후 시장감독총국의 지원 아래 정부 데이터, 정부 정보시스템, 정보서비스 활용 등 주요 표준 개발을 추진하여 표준 자문, 설계 및 기타 컨설팅 서비스, 표준 검증 및 평가 체계 구축, 전자정부 표준시스템 구축, 건전한 기술개발 지원, 보건의료지원 등 전자 정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것임

3. 20.06.23. ISO, 온라인 개인정보 및 동의 보호 표준 발표

- ▷ 원문제목 : PROTECTING PRIVACY AND CONSENT ONLINE
- ▷ 원문링크 : <https://www.iso.org/news/ref2525.html>

- ISO와 IEC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 위원회(ISO/IEC JTC 1/SC 27)가 개발한 새로운 표준 ISO/IEC 29184는 ISO/IEC 29100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함. 구체적으로 동의와 선택(원칙 1)과 개방성, 투명성 및 통지(원칙 7)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ISO/IEC 29184는 어떤 종류의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식별가능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결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자신이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동의를 철회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4. 20.06.24. 유럽 ETSI,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자사이버보안인증그룹' 참여

- ▷ 원문제목 : ETSI ADVISOR AT THE STAKEHOLDER CYBERSECURITY CERTIFICATION GROUP LAUNCHED BY THE EC
- ▷ 원문링크 : <https://www.etsi.org/newsroom/news/1787-2020-06-etsi-advisor-at-the-stakeholder-cybersecurity-certification-group-launched-by-the-ec>
- ETSI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 신설한 이해관계자사이버보안인증그룹(Stakeholder Cybersecurity Certification Group, 이하 SCCG)에 초대되어 1차 회의에 참여함
- SCCG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ECCG(유럽사이버보안인증그룹)과 함께 유럽의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수행함. 또한, 유럽연합의 작업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프레임워크의 스키마 정의에 필요한 우선순위 선정을 지원할 예정임. ETSI는 사이버보안 기술위원회(TC CYBER)를 비롯한 여러 기술위원회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표준 개발 경험을 제공할 것임
- SCCG는 50개 기관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음 - EC에서 초대한 8개 기관과 공개 요청을 통해 선정된 42개 기관으로 구성. SCCG의 회원은 무역협회, 기업, 학술기관, 소비자단체, 적합성평가기관, 표준개발기관 및 기타 회원기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여 의견을 반영할 것임

5. 20.06.25. ITU, 'COVID-19와 디지털 경제' 웨비나 개최

- ▷ 원문제목 : ITU to hold Economic Experts Roundtable on COVID-19 and the digital economy
- ▷ 원문링크 :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MA04-2020-COVID-19-and-the-digital-economy.aspx>
- ITU는 6월 26일 'COVID-19와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경제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웨비나를 개최하여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COVID-19로 인한 디지털 경제의 영향, 최신 연구 및 분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웨비나는 두 가지 패널로 구성되었음. 첫 패널은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COVID-19의 경제적 영향을 다루었으며, 두 번째 패널은 디지털 인프라가 전염병 유행에 대응하여 사회적, 경제적 회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다룸
- COVID-19는 경제 활동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디지털 기술은 중요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촉진하여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가 됨. 특히 재택근무, 원격의료, 음식 배달 및 물류, 온라인 및 비접촉식 결제, 원격 학습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ICT)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는 전염병 유행기간 중

뿐만 아니라 유행 이후에도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것임

- '경제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2015년 ITU 텔레콤 월드에서 출범한 이후, 수많은 ICT 경제 및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경제적, 재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신/ICT의 발전과 관련된 최신 동향과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6. 20.06.30. 유럽 ETSI, IoT 소비자 보안 표준 발표

▷ 원문제목 : ETSI RELEASES WORLD-LEADING CONSUMER IOT SECURITY STANDARD

▷ 원문링크 :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789-2020-06-etsi-releases-world-leading-consumer-iot-security-standard>

- 유럽 ETSI의 사이버보안 기술위원회(TC CYBER)는 IoT 소비자 제품의 보안을 위한 유럽표준인 'ETSI EN 303 645'*을 발표함

* ETSI 기술규격인 'TS 103 645'을 바탕으로 국가표준기구의 코멘트와 투표를 거쳐 개발됨

- 본 표준은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매일 접하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대규모의 보편적인 공격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음. 본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공격자가 전 세계의 장치들을 제어하는 기능에 제약을 줄 것임. 봇넷으로 알려진 이러한 기능으로는 DDoS 공격 개시, 가상화폐 채굴, 가정에서의 사용자 감시 등이 있음. 본 표준은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여 기본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크게 향상시킴
- 'ETSI EN 303 645' 표준은 인터넷 연결된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위한 13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IoT 제품에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어린이 장난감과 유아 모니터, 연기 감지기와 도어락과 같은 안전 관련 제품, 스마트 카메라, TV 및 스피커, 웨어러블 건강 추적기, 홈오토메이션 및 경보시스템,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예: 세탁기, 냉장고), 스마트홈 어시스턴트 등이 포함됨. 이와 함께, 소비자 IoT를 위한 5가지 특정 데이터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많은 기관들이 이미 본 표준과 이전의 기술규격을 중심으로 제품과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TC CYBER는 'ETSI EN 303 645' 표준에 대한 테스트 규격과 구현 가이드를 개발하여 IoT 보안 작업을 지속할 예정임